

# 정책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자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Researchers' Requirements for Policy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노 영 희 (Younghee Noh)\*\*

심 재 윤 (Jae-Yun Sim)\*\*\*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
| 2. 선행 연구      | 5. 면담을 통한 정책정보 입수경로 파악 |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분석방법을 통해 정책정보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이용목적은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동향 파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수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내자료 이용비율이 높았으며, 해외 자료 중에서는 미국자료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에 있어서 최근 2-5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료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 및 보고서로 나타났으며, 요구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to seek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by identifying users' needs for policy information and analyzing policy information users' behavi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olicy information users' needs and behavior through survey and interview meth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purpose of policy information use was figuring out policy trends, and the Internet was the most common search method used in investigating policy information. Second, electronic resources showed a high rate of use, but the domestic material utilization ratio was higher, and the U.S. resources usage of overseas data was the highest. Third, users most often used materials produced within the last 2-5 years, and Web DB (journals, academic articles, etc.) and reports were the most used material types. Fourth, in the survey of opinion about methods for improving policy information utilization efficiency,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libraries,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producing the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overall national collection of policy information were rated the highest.

키워드: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연구자, 정보요구분석, 정책정보이용효율성

Policy Information Service, Policy Researcher, Policy Information Users' Behavior,  
Policy Information Utilization Efficiency

\*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morden0976@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37-168,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137]

## 1. 서론

정책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는 무엇보다 정책 개발, 실행, 평가 환경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는 공정하고 내실있는 연구를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진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정보의 정책 반영 비율이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관연구기관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 실적을 보면 2008년~2010년 3년간 전체 연구과제 7,625건 중 5,700건이다(권택기 2010). 이는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74.75%로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개발과 실행 및 평가 전반에서의 정책정보 협조 체제가 요구된다. 즉,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사회전반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책 대안 관련 기초 연구가 반영된 정책기획이 요구된다. 실제로 조직 내외의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기관 활성화 포럼(2013)' 개최 등으로 정책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정책정보제공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크게 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중복 제공문제, 정책자료의 체계적 관리 부족 문제, 그리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이다. 첫째,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중복 제공의 문제로서,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정책정보 자료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연구서비스관리시스템인 'PRISM' 등의 정책정보

제공시스템이 존재하나 정책정보자료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중복·운영되거나,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책정보자료의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정보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포털'의 자료조직은 서비스 대상이 일반인이라 정책 실무 환경 분석을 통한 업무적합형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즉, 자료의 주제별, 유형별, 업무별로 체계적인 정보제공서비스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구조로 되어 있어, 공유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즉, 정책정보자료서비스(정책정보포털)와 국책연구소 소관 기관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책정보서비스는 완료된 정책정보자료만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단순한 검색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이나 기능이 매우 단편적이다. 또한, 참고정보자료 제공과 같은 부가 정보와 개인 맞춤형서비스 기능과 같이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

고 전문적인 정책정보자료제공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2. 선행 연구

정책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매우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근에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현진과 노영희(2008)는 정책정보가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정책정보 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지원조직의 필요성, 구성,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전담사서제 설치, 정책정보 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황(2009)은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의 “dibrary(digital+library)” 포털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정보포털 협력망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460개의 정부기관 중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354개 기관(77%)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의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해결정보담당관실과의 협력방안과 정부부처 자료실과의 협력방안으로 나누어 정책정보서비스의 협력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광승진 등(2011)은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김동욱(1995)은 공공정책에 관련된 공공기관 간의 정책정보 구축과 공동이용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행정종합정보망, 통계정보시스템, 경제정책정보, 물류정보망, 산업정보망 등의 정보 공동 이용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이용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범부처적인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부처의 인식과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제공 영역이 일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이용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부문이 겹쳐 있는 분야별 종합망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중이거나 사업 초기에 있어 정책정보의 구축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정보의 제공이나 공개를 위한 제도와 정보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업무 흐름의 개선을 수반하는 행

정정보화, 정보관리자의 지원, 준공공조직의 자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 인적 정책정보 공동체의 형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주미(2008)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에 대한 현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정책정보자료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Hernon과 McClure(1988)은 미국연방정보 인쇄출판국의 보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연구하였고, Janowska, Pardo and Davied(2012)는 공공정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존 지식과 자원의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분석된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정보분야 이외에서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에 있어 연구분야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은주(1996)는 이용자의 연령, 자료의 최신성, 해외자료 이용 비율, 정보서비스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하였고, 김병주(1999)는 국내 대학교수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정보의 수집경로와 탐색방법을 조사하였다. 윤정옥(2009)은 전자자료의 발견과 접근, 전자정보원 이용도, 전자정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인문학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고, 이명희와 정혜련(2012)은 국내 디자인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목적, 정보수집경로, 주이용 정보원, 도서관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회색정보원의 수집, 전공자료의 우선수집, 국내외 디자인 관련 DB의 수집, 주제별 정보활용 교육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연구를 포함하여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연구자에 따라 분석대상의 이용행태가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경력, 주제분야, 담당업무 등이고 종속변인은 전자자료 및 인쇄자료 이용률, 국내자료 및 해외자료 이용률, 이용자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입수경로 및 입수어려움, 자료이용목적 등임을 알 수 있다.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3.1 표집방법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연구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산하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

〈표 1〉 요구분석 대상 및 내용

항목	분석내용
조사대상	• 정부부처산하 국책연구소(52개) 연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총 52개 연구소
부처 및 연구소 주소 및 설문·면담 대상자 연락처 확보	• 정부부처 및 연구소 소속 설문·면담 대상자 선정 • 설문·면담 대상자 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전화, e-mail) 정보 확보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수행	• 설문지 개발: 생산되는 정책정보자료에 대한 현황 조사,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 방법: 우편 혹은 e-mail 방법 • 설문지 분석
면담 수행	• 반구조화 된 면담지 개발: 설문 분석 기반 심층 요구분석을 위한 내용 • 설문 대상자 중 선정을 통해 방문을 통한 1:1 면담 실시 • 면담내용 분석

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및 면담을 위한 연구대상자는 국내 국책연구소 총 52개 기관에서 확보하였으며, 실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설문대상자 및 면담대상자를 확보하였다. 먼저 설문대상자 확보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52개의 국책연구소 목록을 확보하고, 각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설문대상자를 조사하였다. 둘째, 홈페이지에서 연구소의 주소, 우편번호, 설문지에 응답해 줄 연구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정책정보 관련 부서의 연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대상자는 이 중에서 보다 심층적인 면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화면담 및 대면면담을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의 표지(Cover Letter)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음을 알리는 간단한 문장을 포함하였다. 설문지가 들어있는 반송용 봉투의 수신자란에는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의 소속기관명과 함께 실명을 기재하여 설

문지가 조사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52개의 연구소당 평균 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총 364부의 배포된 설문지 중 115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31.6%).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가설은  $p < 0.05$  수준에서 검정되었다.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 3.2 설문지 구성

정책관련 연구자들의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과정을 거쳐 총 2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책정보연구자, 통계전문가, 정책정보분류전문가 등의 검토과정 및 수정보완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정책연구자 10명을 대상으로 미리 예비설문을 하여 설문문항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응답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주제분야
	직장 근무 경력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정책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정책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중 더 많이 이용하는 자료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중 더 많이 이용하는 자료
	국가별 해외자료 이용비율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연구나 업무를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책정보 제공사이트를 알고 있는 정도
	이용해 본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각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	
정책정보활용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정도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도움이 되는 정도
	집중적으로 구축해야 할 정보원의 유형
	정책정보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요구 기능

최종적으로 크게 개인적 배경 5개 문항, 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 11개 문항, 정책정보 개선요구사항 6개 문항, BRM 개선요구사항 4개 문항 등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3.3 변인과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책정보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적 요인 중 사용빈도가 높은 경력, 연구 및 업무주제분야, 담당업무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고, 정책정

보 이용현황 및 이용정도 즉, 전자자료 및 인쇄자료 이용률, 국내자료 및 해외자료 이용률, 이용자료의 최신성,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정책정보 입수경로,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정책정보입수어려움 정도, 정책정보이용목적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및 업무주제분야에 따라 전자자료 및 인쇄자료 이용률, 국내자료 및 해

외자료 이용률, 이용자료의 최신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라 전자자료 및 인쇄자료 이용률, 정책정보 입수경로,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정책정보입수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3〉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업무에 따라 정책정보이용목적, 국내자료 및 해외자료 이용률, 정책정보 입수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분석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 4.1.1 성별, 연령, 그리고 직장근무경력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성별을 보면, 응답자 총 115명 중 남자는

53%, 여자는 47%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지에 참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23.5%, 40대 20.9%, 그리고 50대 6.1%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에 참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직장 근무 경력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5년 미만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 17.4%, 15년 이상~20년 미만 6.1%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 4.1.2 주제분야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분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질서 및 안전 8.7%, 농림·수산 7.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2%~4%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국방, 문화체육관광, 보건, 재정·세재·금융, 해양수산 분야는 0%로 나타났다. 기타의 주제분야로 ICT(정보통신기술), 건축·도시, 국제개발, 법률, 녹색기술, 공간정보, 농촌지역개발 등이

〈표 3〉 성별 현황

성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1	53.0
	여	54	47.0
연령	20대	27	23.5
	30대	57	49.6
	40대	24	20.9
	50대	7	6.1
직장근무경력	5년 미만	72	62.6
	5년 이상~10년 미만	20	17.4
	10년 이상~15년 미만	6	5.2
	15년 이상~20년 미만	7	6.1
	20년 이상~25년 미만	5	4.3
	25년 이상	5	4.3

있었다(〈표 4〉 참조).

〈표 4〉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주제 분야 현황

구분	빈도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10	8.7
과학기술	51	44.3
교육	2	1.7
교통 및 물류	3	2.6
국방	0	0.0
국토개발	7	6.1
농림·수산	9	7.8
문화체육관광	0	0.0
보건	0	0.0
사회복지	3	2.6
산업·통상·중소기업	5	4.3
일반공공행정	8	7.0
재정·세제·금융	0	0.0
통신	3	2.6
통일·외교	4	3.5
해양수산	0	0.0
환경	2	1.7
기타	8	7.0

#### 4.1.3 담당업무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책연구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황분석 및 평가 11.3%, 정책분석 10.4%, 정책개발 7.8%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기타의 12.2%에 해당하는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지원, 기술개발, 사업기획, 식품관련 연구 및 분석지원, 분석, R&D, 식품연구, 연구 및 실험, 사기업 경영 기획, 그리고 갈등관리 교육 등이 있었다. 식품연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한 건씩의 응답이었다(〈표 5〉 참조).

〈표 5〉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정책개발	9	7.8
정책분석	12	10.4
정책평가	1	0.9
현황분석 및 평가	13	11.3
통계연구(통계분석)	5	4.3
출판, 홍보	2	1.7
담당분야 사업운영	3	2.6
정책연구	44	38.3
정책입안지원	2	1.7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7	6.1
기타	14	12.2
무응답	3	2.6

## 4.2 정책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

정책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정책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중 더 많이 이용하는 자료,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중 더 많이 이용하는 자료, 해외자료 중 어느 나라의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연구나 업무를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책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 이용해 본 정책정보제공사이트, 각 정책정보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4.2.1 정책정보 이용현황

먼저 이용현황은 앞의 6개 문항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책정보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정책정보 이용자들의 정책정보 이용목적에 파악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질의하였으며(〈표 6〉 참조), 그 결과 65.2%의 응답자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정책동향 파악 61.7%, 업무활용 54.8%, 연구동향 파악 4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명은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에게 정책정보자료를 입수하는 경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회, 세미나, 전시회 47.8%, 외부정보서비스 기관 47.0%, 소속 기관 도서관/ 지식정보실 46.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에게 정책정보 이용을 위해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중 어떤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전자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81.7%로 나타났고 인쇄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17.4%로 나타나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정책정보 이용현황

	구분	빈도	비율(%)
정책정보	정책동향 파악	71	61.7
	업무활용	63	54.8
	연구과제 수행	75	65.2
	연구동향 파악	55	47.8
	시장/마케팅상황 파악	12	10.4
	기타	1	0.9
정책정보 입수경로	본인 소장자료	27	23.5
	동료	38	33.0
	전공 관련 전문가	41	35.7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53	46.1
	외부정보서비스 기관	54	47.0
	출판사 및 서점	10	8.7
	학회, 세미나, 전시회	55	47.8
	인터넷	93	80.9
	SNS서비스	2	1.7
기타	0	0.0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이용비율	인쇄자료	20	17.4
	전자자료	94	81.7
	무응답	1	0.9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비율	국내자료	73	63.5
	해외자료	42	36.5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최근 1년 이내	28	24.3
	최근 2-5년 이내	82	71.3
	최근 6-10년 이내	4	3.5
	10년 이상	0	0.0
	무응답	1	0.9

설문응답자에게 정책정보 이용을 위해 국내 자료와 해외자료 중 어떤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은 63.5%로 해외자료 이용비율의 36.5%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응답자에게 주로 몇 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최근 2-5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71.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24.3%로 나타났으며, 6년 이상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설문응답자에게 해외자료 중 어느 나라의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85.2%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국 4.3%, 중국 2.6%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 연구자들을 위해 미국자료의 집중적 구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국가별 해외자료 이용 현황

구분	빈도	비율(%)
미국	98	85.2
영국	5	4.3
프랑스	1	0.9
독일	2	1.7
이탈리아	0	0.0
중국	3	2.6
일본	1	0.9
기타	2	1.7
무응답	3	2.6

#### 4.2.2 정책정보 이용정도

다음은 정책정보 이용정도를 뒤의 5개의 문항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표 8〉 참조), 설문응답자에게 연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74.8%가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이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평균 4.15). 이로 보아 국책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정책정보자료를 연구나 업무를 위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구축과 신속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정책정보 이용정도

구분	빈도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많이 이용	50	43.5	4.15	0.89
어느 정도 이용	36	31.3		
보통	23	20		
잘 이용하지 않음	5	4.3		
전혀 이용하지 않음	0	0.0		
무응답	1	0.9		

#### 4.2.3 정책정보원 유형별 이용정도 및 요구정도

설문응답자에게 연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정보원 유형을 선택하도록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9〉 참조). 그 결과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가 평균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고서가 평균 4.18, 통계자료 3.86, 유관기관 사이트 3.72, 국제기구 발간자료 3.52,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표 9〉 정책정보원 유형별 이용정도 및 요구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정책정보원 유형별 이용정도	단행본(전자책 포함)	3.46	0.99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	4.24	0.93
	사전 및 백과사전	2.73	1.08
	각종 편람	2.75	1
	보고서	4.18	0.82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3.5	1.05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정보	2.95	1.03
	국제기구 발간자료	3.52	1.14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	3.08	1.04
	외국 정부간행물	3.19	1.08
	통계자료	3.86	1.05
	법령자료	3.25	1.24
	기타 관련 웹 사이트(블로그, 웹진, 위키형, SNS 등)	2.89	1.25
	유관기관 사이트	3.72	0.94
	관련학회 정보 사이트	3.22	1.07
기타	2	1	
정책정보원 유형별 요구정도	단행본(전자책 포함)	3.93	0.95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	4.55	0.72
	사전 및 백과사전	3.1	0.98
	각종 편람	3.41	1.01
	보고서	4.3	0.81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4	0.82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정보	3.55	0.93
	국제기구 발간자료	4.14	0.89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	3.76	0.97
	외국 정부간행물	4.05	0.93
	통계자료	4.26	0.92
	법령자료	3.84	0.94
	기타 관련 웹 사이트(블로그, 웹진, 위키형, SNS 등)	2.99	1.19
	유관기관 사이트	3.75	0.9
	관련학회 정보 사이트	3.54	0.92
기타 ( )	2.46	1.39	

3.5 순으로 나타났다. 회색자료가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응답자가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원으로서, 향후 어떤 정보원 유형을 집중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 각 정보원의 유형별 요구정도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자료 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가 평균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고서 4.3, 통계자료 4.26, 국제기구 발간자료 4.14, 외국정부간행물 4.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전문정보지가 있었다.

4.2.4 정책정보사이트 인지 정도

설문응답자에게 정책관련 정책정보제공사이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표 10〉 참조). 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24.4%로 나타났고, 모르고 있다는 비율은 19.2%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비율이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에 대

한 인지도는 평균 3.08로 그다지 높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4.2.5 정책정보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

설문응답자에게 정책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정보원과 그 활용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11〉 참조). 그 결과

〈표 10〉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 알고 있다	4	3.5	3.08	0.75
잘 알고 있다	24	20.9		
보통이다	64	55.7		
잘 모른다	21	18.3		
전혀 모른다	1	0.9		

〈표 11〉 정책정보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	국립중앙도서관	2.94	1.32
	국가기록원 정책정보	2.41	1.08
	국회도서관(입법지식서비스, 국내핵심참고정보원 등)	3.41	1.34
	안전행정부 '프리즘(PRISM)'	2.62	1.34
	정책정보브리핑 아카이브	2.31	1.15
	누리미디어 DBpia	3.27	1.45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RISS)	3.72	1.33
	EBSCO Host	2.32	1.3
	Wiley online library	2.7	1.44
	해외저널정보원	2.04	1.1
	Conal Conference Alerts	1.85	1.06
	통계청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3.5	1.28
	UBIN 해외통계정보원	2.08	1.13
	국제통계정보DB	2.51	1.34
	국가법령정보센터	3.26	1.41
	세계법제정보센터	2.11	1.12
	미국 정부간행물 출판국(GPO)	2.05	1.16
	영국 정부간행물 출판물(TSO) / GOV.UK	1.89	1.11
	캐나다 정부간행물 출판국(GCP)	1.8	1.08
	UN DB	2.55	1.32
	소속 기관 도서관/자료실 홈페이지	3.92	1.14
	삼성경제연구소(SERI)	3.01	1.25
	네이버	3.71	1.27
구글, 구글학술검색	4.51	0.81	

〈표 12〉 업무 수행 시 활용하는 정보원의 개방형 답변결과

구분	빈도
AURIC	1
Bock-online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1
CHKI	1
JSTOR	2
Juris.de	1
KISS	1
KISTEP	2
NDSL(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미리안	8
OECD il library, OECD Statistics	3
PACST	1
R&D	1
Science Direct	1
SNS	1
STEPI	3
UN NGO	1
Westlaw	1
Wikipedia	1
관련기관 홈페이지(부처, 유관기관, 정책관련기관 등)	5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1
대학홈페이지	1
미국의 핵비확산 싱크탱크 홈페이지 및 전자메일 서비스	1
정부보도자료	1
현재 소속된 기관의 자료실	1

구글, 구글학술검색(Google, Google Scholar)이 평균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 기관 도서관/자료실 홈페이지가 3.92,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RISS) 3.72, 네이버 3.71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속도서관 및 자료실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외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정보원을 최대한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 4.3 정책정보 활용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설문응답자에게 정책정보 활용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활용상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정도,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도움이 되는 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였으며, 집중

적으로 구축해야 할 정보원의 유형, 정책정보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요구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 4.3.1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정도

설문응답자에게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렵다는 비율이 53.9%로 나타났고, 쉽다는 비율은 6.1%에 지나지 않았다(〈표 13〉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정보자료의 제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공기관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4.3.2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설문응답자에게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정책정보서비스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포털시스템 부재)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17.4%,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10.4%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3〉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한 정책정보 입수 어려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어려움	12	10.4	3.58	0.76
조금 어려움	50	43.5		
보통정도	46	40		
비교적 쉬움	7	6.1		
매우 쉬움	0	0.0		

〈표 14〉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미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정보서비스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 (포털시스템 부재).	35	30.4	20	17.4	16	13.9	44	38.3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20	17.4	12	10.4	21	18.3	62	53.9
정책정보제공 사이트 사용법이 어렵다.	0	0.0	3	2.6	3	2.6	109	94.8
제공되는 정책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	11	9.6	17	14.8	14	12.2	73	63.5
정책정보제공사이트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9	7.8	11	9.6	12	10.4	83	72.2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12	10.4	11	9.6	8	7	84	73
해외 정책정보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	11	9.6	16	13.9	16	13.9	72	62.6
정책정보의 검색지원기능이 미비하다.	3	2.6	11	9.6	13	11.3	88	76.5
정책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11	9.6	13	11.3	11	9.6	80	69.6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0	0.0	0	0.0	0	0.0	115	100
기타	2	1.7	0	0.0	0	0.0	113	98.3

4.3.3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도움이 되는 정도  
 정보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정책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는 5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90.4%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연구자들은 정책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4.3.4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  
 정책정보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이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4.12,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 4.02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기타 의견으로 정책정보 통계자료의 일원화와 수요자 요청형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이 있었다.

4.3.5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요구 기능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어떤 기능이 제공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책정보자료 원문 제공이 평균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 주요 정책정보 수집 및 번역서비스 4.34, 정책정보 전문 검색서비스(BRM 검색 기능 등) 4.32, 정책동향분석서비

〈표 15〉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도움	61	53	4.42	0.71
어느 정도 도움	43	37.4		
보통	9	7.8		
도움 안됨	2	1.7		
전혀 도움 안됨	0	0.0		

〈표 16〉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

구분	매우 중요		어느 정도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미응답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47	40.9	40	34.8	21	18.3	2	1.7	3	2.6	2	1.7	4.12	0.95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	50	43.5	42	36.5	19	16.5	2	1.7	2	1.7	0	0.0	4.18	0.89
정책정보자료 전문가의 추천서비스 제공	22	19.1	36	31.3	42	36.5	11	9.6	2	1.7	2	1.7	3.58	0.97
정책정보자료의 대량 구축	36	31.3	49	42.6	22	19.1	5	4.3	2	1.7	1	0.9	3.98	0.92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다양화	37	32.2	43	37.4	28	24.3	3	2.6	3	2.6	1	0.9	3.95	0.96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	46	40	34	29.6	28	24.3	5	4.3	2	1.7	0	0.0	4.02	0.99
기타	1	0.9	0	0.0	7	6.1	3	2.6	4	3.5	100	87	2.4	1.12

〈표 17〉 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요구 기능

구분	매우 중요		어느 정도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미응답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게시판형 정보지원 및 제공서비스	14	12.2	37	32.2	49	42.6	7	6.1	5	4.3	3	2.6	3.43	0.95
온라인 실시간 24시간 정보지원 및 제공서비스	34	29.6	27	23.5	46	40	5	4.3	2	1.7	1	0.9	3.75	0.99
정책정보 맞춤형 서비스 (RSS, PUSH서비스, 최신정보제공 등)	51	44.3	42	36.5	17	14.8	1	0.9	3	2.6	1	0.9	4.2	0.91
온라인 전시공간 마련(정책정보서비스 홍보)	12	10.4	30	26.1	46	40	15	13	15	13	3	2.6	3.19	1.06
이용자간 커뮤니티 제공(전문가 포럼 등)	18	15.7	25	21.7	48	41.7	25	21.7	6	5.2	3	2.6	3.3	1.06
정책정보자료 원문 제공	67	58.3	34	29.6	11	9.6	3	2.6	0	0.0	0	0.0	4.43	0.77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정책정보이용자 상담 서비스	18	15.7	29	25.2	43	37.4	16	13.9	6	5.2	3	2.6	3.33	1.08
해외 주요 정책정보 수집 및 번역서비스	61	53	35	30.4	15	13	2	1.7	1	0.9	1	0.9	4.34	0.84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적 의견조사(설문이나 협의회 등 활용)	9	7.8	35	30.4	55	47.8	12	10.4	2	1.7	2	1.7	3.33	0.84
정책정보 전문 검색서비스(BRM 검색 기능 등)	57	49.6	40	34.8	16	13.9	0	0.0	2	1.7	0	0.0	4.32	0.78
정책동향분석서비스	51	44.3	41	35.7	20	17.4	2	1.7	0	0.0	1	0.9	4.24	0.8
기타( )	0	0.0	1	0.9	9	7.8	0	0.0	3	2.6	102	88.7	2.62	0.96

스 4.24, 정책정보 맞춤형 서비스(RSS, PUSH 서비스, 최신정보제공 등) 4.2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 4.4 교차분석 및 가설검증

##### 4.4.1 주제분야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야별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4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피셔(Fisher) 정확검증을 실시했다. 피셔의 정확검정은 2X2 분할표에 대해 행요인과 열요인이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할 때 사용한다. 이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카이제곱 검정과 동일하지만 피셔의 정확검정은 각 범주의 관측치가 5 이하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1) 주제분야별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이용비율

설문응답자의 주제분야별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쇄자료의 이용비율이 더 높은 주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분야는 전자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분야별 이용자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p$ 값은 0.0005376으로 매우 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 (2) 주제분야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의 이용비율

설문응답자의 주제분야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의 이용비율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자료의 이용비율이 해외자료의 이용비율보다



〈표 18〉 주제분야별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이용비율

구분	전자자료		인쇄자료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4	40.00	6	60	10
과학기술	47	92.16	4	7.84	51
교육	2	100.00	0	0.00	2
교통 및 물류	1	33.33	2	66.67	3
국방	0	0.00	0	0.00	0
국토개발	7	100.00	0	0	7
농림·수산	7	77.78	2	22.22	9
문화체육관광	0	0.00	0	0.00	0
보건	0	0.00	0	0.00	0
사회복지	1	33.33	2	66.67	3
산업·통상·중소기업	5	100.00	0	0.00	5
일반공공행정	8	100.00	0	0.00	8
재정·세재·금융	0	0.00	0	0.00	0
통신	3	100.00	0	0.00	3
통일·외교	2	50.00	2	50.00	4
해양수산	0	0.00	0	0.00	0
환경	2	100.00	0	0.00	2
기타	5	71.43	2	28.57	7
총합	94		20		114
Pr <= P			0.0005376		

\* 결측 빈도 = 1

높게 나타났으나, 해외자료의 이용비율이 더 높거나 같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통일·외교, 환경분야로 나타났다. 국내자료와 해외자료의 이용률에 주제분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p값은 0.315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3) 주제분야별 이용자료의 최신성

설문응답자의 주제배경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분야는 최근 1년 이내 자료를 이용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제분야는 최근

2~5년 이내 자료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는 최근 1년에서 10년까지의 자료를 비교적 골고루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이를 종합하여 〈가설 H1〉의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및 업무주제분야에 따른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이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및 업무주제분야에 따른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률과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H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19〉 주제분야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의 이용비율

구분	국내자료		해외자료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5	50.00	5	50.00	10
과학기술	33	64.71	18	35.29	51
교육	2	100	0	0.00	2
교통 및 물류	2	66.67	1	33.33	3
국방	0	0.00	0	0.00	0
국토개발	5	71.43	2	28.57	7
농림·수산	8	88.89	1	11.11	9
문화체육관광	0	0.00	0	0.00	0
보건	0	0.00	0	0.00	0
사회복지	2	66.67	1	33.33	3
산업·통상·중소기업	3	60.00	2	40.00	5
일반공공행정	6	75.00	2	25.00	8
재정·세제·금융	0	0.00	0	0.00	0
통신	0	0.00	3	100.00	3
통일·외교	2	50.00	2	50.00	4
해양수산	0	0.00	0	0.00	0
환경	0	0.00	2	100	2
기타	5	62.5	3	37.5	8
총합	73		42		115
Pr <= P			0.3153		

〈표 20〉 주제분야별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구분	최근 1년 이내		최근 2-5년 이내		최근 6-10년 이내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3	30.00	7	70.00	0	0.00	10
과학기술	16	31.37	32	62.75	3	5.88	51
교육	1	100.00	0	0.00	0	0.00	1
교통 및 물류	0	0.00	3	100.00	0	0.00	3
국방	0	0.00	0	0.00	0	0.00	0
국토개발	1	14.29	6	85.71	0	0.00	7
농림·수산	0	0.00	9	100.00	0	0.00	9
문화체육관광	0	0.00	0	0.00	0	0.00	0
보건	0	0.00	0	0.00	0	0.00	0
사회복지	0	0.00	3	100.00	0	0.00	3
산업·통상·중소기업	1	20.00	3	60.00	1	20.00	5
일반공공행정	1	12.5	7	87.5	0	0.00	8
재정·세제·금융	0	0.00	0	0.00	0	0.00	0
통신	2	66.27	1	33.33	0	0.00	3
통일·외교	2	50	2	50	0	0.00	4
해양수산	0	0.00	0	0.00	0	0.00	0
환경	0	0.00	2	100.00	0	0.00	2
기타	1	12.5	7	87.5	0	0.00	8
총합	28		82		4		114
Pr <= P			0.4362				

\* 결측 빈도 = 1

4.4.2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는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4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경로

먼저, 설문응답자의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경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미만의 경력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7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학회·세미나·전시회가 각각 47.22%,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 41.6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8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부정보서비스 기관 55%, 전공관련 전문가 45%, 학회·세미나·전시회 40%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책정보를 입수한다는 비율이 8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과 학회·세미나·전시회가 각각 66.67%,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 50% 순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응답자의 10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동료, 전공관련 전문가,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57.14%,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과 학회·세미나·전시회 각각 42.86%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는 예외

<표 21>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경로

구분	빈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Pr(<= P)
본인 소장 자료	빈도	18	3	1	2	2	1	0.8423
	%	25.00	15.00	16.67	28.57	40.00	20.00	
동료	빈도	27	2	1	4	2	2	0.0912
	%	37.5	10.00	16.67	57.14	40.00	40.00	
전공 관련 전문가	빈도	23	9	1	4	2	2	0.5954
	%	31.94	45.00	16.67	57.14	40.00	40.00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빈도	34	6	4	4	2	3	0.5536
	%	47.22	30	66.67	57.14	40.00	60.00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	빈도	30	11	3	3	4	3	0.5694
	%	41.67	55.00	50.00	42.86	80.00	60.00	
출판사 및 서점	빈도	8	0	0	1	0	1	0.3781
	%	11.11	0.00	0.00	14.29	0.00	20.00	
학회·세미나·전시회	빈도	34	8	4	3	2	4	0.6403
	%	47.22	40.00	66.67	42.86	40.00	80.00	
인터넷	빈도	57	16	5	7	3	5	0.5617
	%	79.17	80.00	83.33	100.00	60.00	100.00	
SNS 서비스	빈도	0	0	0	1	0	1	0.0322
	%	0.00	0.00	0.00	14.29	0.00	20.00	
기타	빈도	72	20	6	7	5	5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적으로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위가 인터넷 60%로 나타났다.

25년 이상 경력자도 응답자의 10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학회·세미나·전시회 80%,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과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 6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경로 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정책정보 입수 경로 중에서 SNS 서비스만 유의확률  $p$ 값이 0.0322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들은  $p$ 값이 모두 0.05보다 커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근무 경력별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이용 비율

설문응답자의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 경력에 관계없이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도 분석에서  $p$ 값은 0.3665로 집단간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 경력자의 60%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의 42.86%,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의 30%, 그리고 5년 미만 경력자의 20.8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경력이 길수록 정책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도 검증에서는 유의확률  $p$ 값은 0.7788으로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라 정책정보 제공사이트에 대한 인식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3> 참조).

(4)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어려움 정도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시 어려움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비교적 쉽다는 비율이 28.57%로 나타났고, 15년 미만의 경력자도 비

<표 22> 근무 경력별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이용 비율

구분	전자자료		인쇄자료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미만	60	83.33	12	16.67	72
5년 이상~10년 미만	16	84.21	3	15.79	19
10년 이상~15년 미만	6	100	0	0	6
15년 이상~20년 미만	6	85.71	1	14.29	7
20년 이상~25년 미만	3	60.00	2	40	5
25년 이상	3	60.00	2	40	5
총합	94		20		114
Pr <= P	0.3665				

\* 결측 빈도 = 1

〈표 23〉 근무 경력별 국내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비율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총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5년 미만	1	1.39	14	19.44	42	58.33	12	16.67	3	4.17	72
5년 이상~10년 미만	0	0.00	4	20.00	10	50.00	5	25.00	1	5.00	20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0	2	40.00	3	60.00	0	0.00	0	0.00	5
15년 이상~20년 미만	0	0.00	1	14.29	3	42.86	3	42.86	0	0.00	7
20년 이상~25년 미만	0	0.00	0	0.00	4	80.00	1	20.00	0	0.00	5
25년 이상	0	0.00	0	0.00	2	40.00	3	60.00	0	0.00	5
총합	1		21		64		24		4		114
Pr <= P	0.7788										

\* 결측 빈도 = 1

〈표 24〉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 입수 어려움 정도

구분	매우 쉬움		비교적 쉬움		보통정도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총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5년 미만	0	0.00	1	1.39	32	44.44	31	43.06	8	11.11	72
5년 이상~10년 미만	0	0.00	3	15.00	4	20.00	9	45.00	4	20.00	20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0	1	16.67	2	33.33	3	50.00	0	0.00	6
15년 이상~20년 미만	0	0.00	2	28.57	2	28.57	3	42.86	0	0.00	7
20년 이상~25년 미만	0	0.00	0	0.00	4	80.00	1	20.00	0	0.00	5
25년 이상	0	0.00	0	0.00	2	40.00	3	60.00	0	0.00	5
총합	0		7		46		50		12		115
Pr <= P	0.0966										

교적 쉽다는 응답자가 소수 있었으나 20년 이상 경력자는 보통 이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시 어려움 정도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p*값은 0.09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시 어려움 정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4〉 참조).

이를 종합하여 〈가설 H2〉의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경로,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이용,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정책정

보 입수시 어려움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H2〉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 4.4.3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는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4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이용목적

담당 업무별로 정책정보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담당 업무별 이용목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책동향

과약이었다. 즉, 정책입안지원 업무담당자는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고, 정책분석 업무담당자 83.33%, 정책개발 업무담당자는 77.78%, 현황분석 및 평가 업무담당자 76.92%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활용을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는 정책평가 업무담당자와 담당분야 사업운영자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업무 71.43%, 정책분석 58.33%, 정책개발 55.5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정책평가 업무담당자, 통계연구 담당자, 정책입안지원 담당자 100%로 높게 나타났고, 정책연구자 70.45%, 현황분석 및 평가 업무담당자 69.23%로 나타났다.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정책입안지원 담당자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개발 담당자 66.67%,

현황분석 및 평가 담당자 53.85%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마케팅 상황파악을 위해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책정보 담당자는 정책입안지원 담당자 5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황분석 및 평가 업무담당자 23.08%, 통계연구 20%순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 업무에 따른 이용목적 간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이용목적 중에서 정책동향 항목만 유의확률  $p$ 값이 0.0009442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p$ 값이 0.05보다 모두 커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입수경로

담당 업무별로 정책정보 입수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담당 업무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입수

〈표 25〉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이용목적 비교

담당업무	이용목적		정책동향 파악		업무활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동향 파악		시장/마케팅 상황파악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책개발	7	77.78	5	55.56	6	66.67	6	66.67	1	11.11	0	0.00	0	0.00
정책분석	10	83.33	7	58.33	6	50.00	5	41.67	2	16.67	0	0.00	0	0.00
정책평가	0	0.00	1	100.00	1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현황분석 및 평가	10	76.92	8	61.54	9	69.23	7	53.85	3	23.08	0	0.00	0	0.00
통계연구(통계분석)	1	20.00	2	40.00	5	100.00	2	40.00	1	20.00	0	0.00	0	0.00
출판, 홍보	1	50.00	1	50.00	0	0.00	1	50.00	0	0.00	0	0.00	0	0.00
담당분야 사업운영	0	0.00	3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정책연구	32	72.73	20	45.45	31	70.45	22	50.00	1	2.27	1	2.27	1	2.27
정책입안지원	2	100.00	1	50.00	2	100.00	2	100.00	1	50.00	0	0.00	0	0.00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1	14.29	5	71.43	4	57.14	1	14.29	0	0.00	0	0.00	0	0.00
기타	6	42.86	9	64.29	9	64.29	8	57.14	3	21.43	0	0.00	0	0.00
Pr <= P	0.0009442		0.7832		0.1247		0.3511		0.0845		1			

\* 결측 빈도 = 3

〈표 26〉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 입수 경로

구분	본인소장 자료		동료		전공관련 전문가		소속기관 도서관 / 지식정보실		외부 정보 서비스 기관		출판사 및 서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비율	%	비율	%
정책개발	3	33.33	1	11.11	5	55.56	7	77.78	4	44.44	0	0.00
정책분석	2	16.67	2	16.67	3	25.00	2	16.67	5	41.67	0	0.00
정책평가	0	0.00	1	100.00	0	0.00	1	100.00	1	100.00	0	0.00
현황분석 및 평가	4	30.77	6	46.15	9	69.23	4	30.77	7	53.85	2	15.38
통계연구(통계분석)	0	0.00	2	40.00	0	0.00	3	60.00	2	40.00	0	0.00
출판, 홍보	0	0.00	0	0.00	0	0.00	2	100.00	1	50.00	1	50.00
담당분야 사업운영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정책연구	14	31.82	16	36.36	19	43.18	24	54.55	24	54.55	6	13.64
정책입안지원	2	100.00	1	50.00	2	100.00	1	50.00	2	100.00	0	0.00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0	0.00	2	28.57	0	0.00	3	42.86	2	28.57	0	0.00
기타	1	7.14	5	35.71	2	14.29	5	35.71	6	42.86	1	7.14
Pr <= P	0.1139		0.5154		0.002		0.0444		0.664		0.5692	

\* 결측 빈도 = 3

경로는 전공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정보를 입수한다는 것( $p=0.002$ )과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을 통해 입수한다는 것( $p=0.0444$ )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장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구자는 정책입안지원 담당자였고, 동료로부터 자료를 입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구자는 정책평가 업무담당자였으며, 전공관련전문가를 통해 가장 많이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업무담당자는 정책입안지원 담당자였다.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정책평가 업무담당자와 출판 및 홍보 담당자였고, 외부 정보 서비스 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정책평가 업무담당자와 정책입안지원 담당자였으며, 출판사 및 서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출판 및 홍보 담당자였다.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 업무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경로 간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 업무에 따른 정책정보

입수경로에서 두 가지 항목인, 전공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정보를 입수한다는 항목과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을 통해 정책정보를 입수한다는 항목만 각각 유의확률  $p$ 값 0.002와 유의확률  $p$ 값 0.044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p$ 값이 모두 0.05보다 커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담당 업무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 비율

담당 업무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국내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정책평가분야(100%)이고, 정책분석과 정책연구는 동일한 비율(50%)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 업무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

〈표 27〉 담당 업무별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비교

구분	국내자료		해외자료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개발	7	77.78	2	22.22	9
정책분석	6	50.00	6	50.00	11
정책평가	0	0.00	1	100.00	2
현황분석 및 평가	8	61.54	5	38.46	13
통계연구(통계분석)	4	80.00	1	20.00	5
출판, 홍보	2	100.00	0	0.00	2
담당분야 사업운영	2	66.67	1	33.33	3
정책연구	22	50.00	22	50.00	44
정책입안지원	2	100.00	0	0.00	2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5	71.43	2	28.57	7
기타	12	85.71	2	14.29	14
총합	70		42		112
Pr <= P			0,2483		

\* 결측 빈도 = 3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p=0.2483$ ). 따라서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 업무에 따른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비율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하여 〈가설 H3〉의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업무에 따른 정책정보 이용목적 중 정책동향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졌고, 정책정보 입수경로에서는 전공 관련 전문가 항목과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등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항목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졌고, 나머지 항목들은  $p$ 값이 모두 0.05보다 커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책분야 연구자들의 담당업무에 따른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이용비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H3〉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 5. 면담을 통한 정책정보 입수경로 파악

설문은 구조화되고 다수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참고자료나 정책정보 입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면담을 하여서 정책정보 입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설문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서 연구자가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어떤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는지,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5.1 면담지 설계 및 내용

면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정



보를 입수함에 있어서 어떤 경로로 입수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내용은 기존의 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분류전문가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서비스 담당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면담내용은 <표 28>과 같다.

즉, 면담문항은 크게 개인적 배경 5문항과 정책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질문, 추가적으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인적 배경정보를 제외하고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간단히 질문하였다. 이는 설문과정을 통해서 이미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정보입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소수의 질문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 내야했기 때문이다.

<표 28> 정책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질문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응답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주제분야
	직장 근무 경력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정책정보 입수경로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어떤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는지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의견

## 5.2 면담분석결과

### 5.2.1 면담자의 개인적인 배경

면담에 응한 응답자는 총 10명으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하였다. 남녀 비율은 6:4 정도이고 연령대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장 근무 경력이나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나 주제분야가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연구기간의 한계로 다양한 주제분야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29> 참조).

### 5.2.2 정책정보 입수경로

면담자가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면담자의 대부분이 정책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은 구글, 네이버, 인터넷 포털, 인터넷서치 등도 포함한다. 좀 더 깊이 있는 검색을 위한 의견으로 싱크탱크홈페이지, 웹DB, 특허DB, 국회도서관, 도서관 자료 검색 등이 있었다.

### 5.2.3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면담자가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주로 어떤 정보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면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 32>와 같이 다양한 참고정보원을 제시하였다.

10명의 면담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정보원을 종합분석한 결과, 첫째, 구글, 구글학술검색, 네이버 등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면담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술데이터베이스(Web of Knowledge, Science Direct, EBSCO, Wiley Online, DBPia)도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활용되는 전문데이터베이스는 면담자의 연구 및 업무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KERIS RISS, 국회도서관, SERI 등도 많이 이

〈표 29〉 면담자의 특징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	60.00
	여	4	40
연령	20대	1	10
	30대	6	60
	40대	3	30
	50대	2	20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정책개발	0	0
	정책분석	1	10
	정책평가	0	0
	현황분석 및 평가	2	20
	통계연구(통계분석)	2	20
	출판, 홍보	0	0
	담당분야 사업운영	2	20
	정책연구	2	20
	정책입안지원	0	0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3	30
기타	1	10	
직장 근무 경력	5년 미만	3	30
	5년 이상 10년 미만	1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	10
	15년 이상 20년 미만	1	10
	20년 이상 25년 미만	3	30
	25년 이상	1	10

〈표 30〉 정책정보 입수경로

정책정보 입수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주요 싱크탱크 홈페이지에서</li> <li>• 도서관, 인터넷, 출장, 참고문헌, 세미나 참가, 타 도서관, 네트워크, 동료, 해외지사 등</li> <li>• 인터넷검색, 웹DB검색</li> <li>• 온라인데이터베이스검색, 포털검색 등을 통해 논문, 기사 등의 자료를 주로 입수함</li> <li>• 포털사이트, 논문 DB, 특허 DB</li> <li>• 구글, 네이버</li> <li>• 전문DB,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전문자료 검색, 관련기관 사이트 방문, 국회도서관 등 전자도서관</li> <li>• 인터넷 검색(전문자료가 제공됨)</li> <li>• 인터넷 검색(네이버, 구글), 도서관자료(서적, 논문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li> </ul>

〈표 31〉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 / The Global Go-To Think Tanks <a href="http://gotothinktank.com/">http://gotothinktank.com/</a></li> <li>• 総合研究開発機構 / 世界のシンクタンク <a href="http://www.nira.or.jp/network/abroad/index.html">http://www.nira.or.jp/network/abroad/index.html</a></li> <li>• 주요 활용 정보원(연구보고서, 주간/학술지, 인터넷, 통계, 단행본, 일간/신문, 상용 DB, 멀티미디어, 기타)</li> <li>• 인터넷 활용(WWW, search, e-mail, FTP, mailList, 기타)</li> <li>• 데이터베이스(EIU.C R, Oxford A, EIU.C Dat, WEFA, EIU Views, Bloomberg, DRI, Nikkle Tel, Proquest, ReuterBB, DJI, 기타)</li> <li>• 참고문헌 활용(필요정보원참고, 모든정보원참고)</li> <li>• 인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아주많이활용, 많이활용, 보통활용)</li> <li>• 이슈(일간/뉴스, 보고서/단행본, 주간/월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기타)</li> <li>• 사실정보(일간/뉴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주간/월간, 보고서/단행본, 기타)</li> <li>• 배경, 이슈의 심화(보고서/단행본, 데이터베이스, 주간/월간, 인터넷, 일간/뉴스, 기타)</li> <li>• 국제기구(IMF, World Bank, OECD, WTO, ADB, APEC, ASEAN, EU, BIS, IDB, NAFTA, EBRD, CIS, EFTA, 기타)</li> <li>• 경제상황(IMF,IFS, WEFA, IMF.DOTS, EIU.C Data, DRI, WDR, WIR, 기타)</li> <li>• 경제상황 통계 이외의 변수(외환/대의채무, 외국인투자, 공업생산 증가율, 주가, 실업률, 경상수지, 기타)</li> <li>• 전망자료(WEFA, DRI, OECD, IMF, NIESR, PLANECON, 전망기타)</li> <li>•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연구보고서, 주간/학술지), 인터넷, 통계, 단행본,</li> <li>• 구글, 네이버, 미리안(Mirian.kisti.re.kr)</li> <li>• 구글</li> <li>• 구글, 구글학술검색, DBPia</li> <li>• 구글, 구글학술검색, SERI</li> <li>• 국회도서관, KERIS RISS, EBSCO, Wiley Online, 구글, 네이버</li> <li>• 통계청, Web of Science, KERIS, Scopos</li> <li>• 네이버, 구글, 구글학술검색, Web of Knowledge 검색, Science Direct, 국회도서관</li> </ul>

용되고 있었다. 넷째, 국제기구(IMF, World Bank, OECD, WTO, ADB, APEC, ASEAN, EU, BIS, IDB, NAFTA, EBRD, CIS, EFTA), 경제상황정보(IMF,IFS, WEFA, IMF.DOTS, EIU.C Data, DRI, WDR, WIR), 경제상황 통계 이외의 변수(외환/대의채무, 외국인투자, 공업생산 증가율, 주가, 실업률, 경상수지)정보, 전망자료(WEFA, DRI, OECD, IMF, NIESR, PLANECON)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 하면,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은 연구자의 업무 및 연구내용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연구자들의 정

책정보지원을 위해서는 매우 폭넓게 정보원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5.2.4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면담자에게 질문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 하면 〈표 33〉과 같다. 면담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첫째, 기존 정책정보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보완 및 관련자료의 확충과 갱신이 중요하다. 셋째, 연구자, 대학원생 수준의 정책정보서비스와 일반이용자 수준의 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수준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32〉 면담시 참고할 자료

업무수행 시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
• 국립중앙도서관 ( <a href="http://www.nl.go.kr">http://www.nl.go.kr</a> ) - 국립세종도서관, 디브리리, 정책정보서비스, Kolisnet, 연계자료검색, OASIS,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등
• 국가기록원 정책정보 ( <a href="http://theme.archives.go.kr/next/publication/viewMain.do">http://theme.archives.go.kr/next/publication/viewMain.do</a> )
• 국회도서관 ( <a href="http://next.nanet.go.kr">http://next.nanet.go.kr</a> ) - 입법지식서비스, 국내핵심참고정보원 등
• 안전행정부 '프리즘(PRISM)' ( <a href="http://www.prism.go.kr">http://www.prism.go.kr</a> )
• 정책정보브리핑 아카이브 ( <a href="http://www.korea.kr/archive/mainList.do">http://www.korea.kr/archive/mainList.do</a> )
• 누리미디어 DBpia ( <a href="http://www.dbpia.co.kr">http://www.dbpia.co.kr</a>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RISS) ( <a href="http://www.riss.kr">http://www.riss.kr</a> )
• EBSCO Host ( <a href="http://search.ebscohost.com/">http://search.ebscohost.com/</a> )
• Wiley online library ( <a href="http://onlinelibrary.wiley.com/subject/code/PO70/titles">http://onlinelibrary.wiley.com/subject/code/PO70/titles</a> )
• 해외저널정보원 ( <a href="http://www.tandfonline.com">http://www.tandfonline.com</a> )
• Conal Conference Alerts ( <a href="http://www.conferencealerts.com">http://www.conferencealerts.com</a> )
• 통계청 e-나라지표 ( <a href="http://www.index.go.kr">http://www.index.go.kr</a> )
• 국가통계포털 ( <a href="http://kosis.kr">http://kosis.kr</a> )
• UBIN 해외통계정보원 ( <a href="http://ubin.krihs.re.kr/2009/php/linksite/Statistic.php">http://ubin.krihs.re.kr/2009/php/linksite/Statistic.php</a> )
• 국제통계정보DB ( <a href="http://sdb.nso.go.kr/sdb/MainAction.do?method=main">http://sdb.nso.go.kr/sdb/MainAction.do?method=main</a> )
•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www.law.go.kr/main.html">http://www.law.go.kr/main.html</a> )
• 세계법제정보센터 ( <a href="http://world.moleg.go.kr">http://world.moleg.go.kr</a> )
• 미국 정부간행물 출판국(GPO) ( <a href="http://www.gpo.gov/fdsys">http://www.gpo.gov/fdsys</a> )
• 영국 정부간행물 출판물(TSO) ( <a href="http://www.tso.co.uk">http://www.tso.co.uk</a> ) / GOV.UK ( <a href="https://www.gov.uk/">https://www.gov.uk/</a> )
• 캐나다 정부간행물 출판국(GCP) ( <a href="http://publications.gc.ca">http://publications.gc.ca</a> )
• UN DB ( <a href="http://www.un.org/en/databases/">http://www.un.org/en/databases/</a> )
• 소속 기관 도서관/자료실 홈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SERI) ( <a href="http://www.seri.org/">http://www.seri.org/</a> )
• 네이버(Naver) ( <a href="http://www.naver.com/">http://www.naver.com/</a> )
• 구글, 구글학술검색(Google, Google Scholar) ( <a href="http://www.google.com">http://www.google.com</a> , <a href="http://scholar.google.co.kr/">http://scholar.google.co.kr/</a> )
• 기타 ( )

〈표 33〉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
• 국립세종도서관의 역할 중 정책정보 서비스 기능 보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됨
• GQS, GIB와 같은 기존 정책정보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보완 및 관련자료의 확충과 갱신이 중요함
• 연구자, 대학원생 수준의 정책정보서비스와 대국민 수준의 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수준별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음
• KISTI MIRIAN Site 추가 필요
• 정책정보는 과학기술정보와 달리 다양한 형태(정책)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공과 실제 사례를 알 수 있는 사례 DB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음
• 홍보가 필요하며, 다른 정보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함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책정보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적 요인 중 사용빈도가 높은 경력, 연구 및 업무주제분야, 담당업무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고, 전자자료 및 인쇄자료 이용률, 국내자료 및 해외자료 이용률, 이용자료의 최신성,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도, 정책정보 입수경로, 정책정보 제공사이트 인식, 정책정보입수어려움 정도, 정책정보 이용목적 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1) 정책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

정책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정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첫째, 정책정보의 이용목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과제 수행이었고, 다음으로 정책동향 파악, 업무활용, 연구동향 파악 순으로 나타났고, 정책정보자료를 입수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회, 세미나, 전시회, 외부정보서비스 기관,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자료와 인쇄자료 중 정책연구자들은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를 4배정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고,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중 국내자료를 두배 정도 더 많이 이용하며, 국가별 해외자료 이용비교에서는 미국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나타났다.

셋째, 이용하는 정책정보자료의 최신성을 조사하였으며, 5년 이내에 생산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거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 연구자들은 연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정보를 비교적 높은 비율(74.8%)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3%에 지나지 않았다.

다섯째, 연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정보원 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고서, 통계자료, 유관기관 사이트, 국제기구 발간자료,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보원의 유형별 요구정도가 가장 높은 자료 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고서, 통계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책정보사이트 인지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각 정책정보제공사이트의 활용정도도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구글/구글학술검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 기관 도서관/자료실 홈페이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RISS), 네이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를 볼 때,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책정보원을 확보함에 있어 전자자료 및 국내자료의 확보율을 높이되 해외 자료 중 미국자료의 수집수준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자료를 매우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관련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술지나 보고서, 통계자료, 국제기구 자료, 회의자료 및 세미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술지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고서, 통계

자료, 국제기구 자료, 회의 자료 및 세미나 자료는 대부분 회색자료로서 생산시기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정책정보 활용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

설문을 통해 정책정보 활용상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정책정보 입수의 어려움이 평균 3.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정책정보 입수의 어려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정책정보서비스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포털시스템 부재)는 것이고,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9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시 요구되는 기능으로, 정책정보자료 원문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 주요 정책정보 수집 및 번역서비스, 정책정보 전문 검색서비스(BRM 검색 기능 등), 정책동향분석서비스, 정책정보 맞춤형 서비스(RSS, PUSH서비스, 최신정보제공 등) 순으로 나타났다.

### 3) 면담을 통한 정책정보 입수경로 파악 및 정책정보활성화 방안 파악결과

면담자의 정책정보 입수경로 및 정책정보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반으로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면담자가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정책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구글, 네이버, 인터넷 포털 등)이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싱크탱크홈페이지, Web DB, 특허DB, 국회도서관, 도서관 자료검색 등이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 비교하며 차별화된 정책정보 입수경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면담자가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구글, 구글 학술검색, 네이버,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학술데이터베이스(Web of Knowledge, Science Direct, EBSCO, Wiley Online, DBpia)가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활용되는 전문데이터베이스는 면담자의 연구 및 업무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ERIS RISS, 국회도서관, SERI 등 비교적 일반적인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관련 자료,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 전망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모든 연구자들의 정책정보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분야의 자료를 매우 폭넓게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정보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관련 자료의 확충과 갱신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

대학원생 수준의 정책정보서비스와 일반인 수준의 서비스로 이원화한 수준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권택기. 2010. “2010년도 국정감사.” [online] [cited 2014. 5. 2.]  
<<http://visionk.or.kr/entry/10%EB%85%84-%EA%B5%AD%EA%B0%90-%EC%A7%88%EC%9D%98%EC%9E%90%EB%A3%8C%EA%B2%BD%EC%A0%9C%EC%9D%B8%EB%A3%B8%EC%82%AC%ED%9A%8C%EC%97%B0%EA%B5%AC%ED%9A%8C-2010107>>
- [2] 광승진, 이응봉, 장덕현, 배경제, 김정택. 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11-330.
- [3] 김동욱. 1995.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 『국가기간전산망저널』, 2(4): 49-61.
- [4] 김병주. 1999.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 29-54.
- [5] 김주미. 2008.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IT서비스학회지』, 7(4): 61-86.
- [6]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28.
- [7]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99-316.
- [8] 최은주. 1996.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13-38.
- [9] 최재황. 2009.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협력망 구축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97-114.
- [10] 홍현진, 노영희. 2008.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95-125.
- [11] Herson, P. and C. R. McClure. 1988. “GPO Depository Programs: Building off the Future.” *Library Journal*, 113: 51-60.
- [12] Janowski, Tomasz, Theresa A. Pardo and Jim Davies. 2012. “Government Information Networks-Mapping Electronic Governance cases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concept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9(2012): S1-S1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Taig-Gi. 2010. “2010 Parliamentary Inspection.” [online] [cited 2014. 5. 2.]

〈<http://visionk.or.kr/entry/10%EB%85%84-%EA%B5%AD%EA%B0%90-%EC%A7%88%EC%9D%98%EC%9E%90%EB%A3%8C%EA%B2%BD%EC%A0%9C%EC%9D%B8%EB%AC%B8%EC%82%AC%ED%9A%8C%EC%97%B0%EA%B5%AC%ED%9A%8C-2010107>〉

- [2] Kwak, Seung-Jin, Lee, Eung-Bong, Chang, Durk-Hyun, Bae, Kyung-Jae and Kim, Jeong-Taek.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National Library for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Sejong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11-330.
- [3] Kim, Dong-Wook. 1995. "The 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for Policy Information Cooperative Utilization." *Journal of the National Basic Information System*, 2(4): 49-61.
- [4] Kim, Byong-Ju. 1999. "A Study on Patterns of Scholarly Information Seeking of University Facul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10: 29-54.
- [5] Kim, Jumi. 2008.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 SMEs Policy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7(4): 61-86.
- [6] Yoon, Cheong-Ok. 2009. "Research on the Us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5-28.
- [7] Lee, Myeong-Hee and Jung, Hye-Iyun. 2012.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Professors in Desig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23(1): 299-316.
- [8] Choi, Eun-Ju. 1996.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Social Science Researc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13-38.
- [9] Choi, Jae-Hwang. 2009. "A Study on Cooperative Library Network Program for Government's Policy Information Portal at National Digital Library in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2(1): 97-114.
- [10] Hong, Hyun-jin and Noh, Younghee. 2008. "A Study on Modeling a Unifi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95-125.